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56화)

# “누가 고쳐 주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 9절: 감사하는 생활

- 1) 11년의 군생활 마감과 점점 가족해지는 연단
- 2) 사업을 시작하다
- 3) 이끄심을 받으며 은혜를 승기는 생활
- 4) 영의 흐름을 깨닫다
- 5) 육적으로도 당할 자가 없어
- 6) 생활 전반이 신앙으로 매진

## 6) 생활 전반이 신앙으로 매진

(지난호에 이어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분을 개량한다고 하기에, 일곱째 천사는 부산 삼창기계에서 프레스 기계(베일러라이트를 찍는 기계)를 맞추어가지고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개량기와 공장에 설치해놓고 연탄재와 톱밥 그리고 베일러라이트 원료를 혼합하여 그 프레스 기계로 눌러서 기왓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왓장은 차가 지나가도 깨지질 않을 정도로 단단하였지만 프레스로 한 장씩 찍어내는 것이 한참 만에 찍어내니까 생산능력의 저하로 타산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앞친 데 맞춘 척으로 사기꾼인 줄 모르고 수표를 빌려주었더니, 그 사기꾼이 수표를 납탈하고 현금화하여 도망쳤으므로 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곱째 천사는 값비싼 프레스 기계만큼은 사전에 압류로 조치하여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기계를 대기업에 임대하여 매달 받는 임대료로 상도동 쪽대기에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와 언제나 함께하시므로 망하는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흥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빌려준 프레스 기계를 돌려받고 시흥에 베일러라이트 공장을 차렸습다. 그 당시 정계천 시장을 점령하여 사업에 성공한다는 신념으로 청계천 도매상에

베일러라이트 물건을 조금씩 팔았는데 한 도매상에서는 절대 일곱째 천사의 물건을 안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그 점포 옆에다가 점포를 얻어 공장도 가격으로 물건을 싸게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 그 도매상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도매상이지만 그들도 이문을 붙이고 팔아야 하는데 공장에서 직접 파는 가격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자 각 도매상 주인들은 서로 일곱째 천사의 물건을 달라며 일곱째 천사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지켜주심

베일러라이트 공장 경영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자, 그 다음에 신발장을 만드는 고무관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리하여 청계천에서 일곱째 천사의 고무관과 가차표 고무 공장이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차표 고무와는 질도 떨어지고 해서 경쟁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회사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재벌을 상대로 경쟁하는 것이었지만, 일곱째 천사는 아주 질 좋은 고무관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생각해내서 일등 고무관이 나오므로써 결국 청계천 가게에서 일곱째 천사의 고무관을 쓰지 가차표 고무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쓰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가차표 고무 공장 사장의 사돈이 되는 사람이 일곱째 천사에게 접근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아, 공장이 작은 걸 보니가 공장이 커야 되겠구먼요. 공장시설을 좀 확장해야 되겠구먼요. 그러면 이 공장시설, 확장하려면 확장자금 많이 들텐데. 그 돈을 내가 대출테니까, 동업을 합시다.”하고 동업을 제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일곱째 천사는 지금이 달려 쫓벌때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나 “얼씨구냐하고 “오케이, 좋소”

하며 동업을 허락했습니다.

그러하여 동업자의 돈으로 공장을 확장하여 물건을 많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업자가 돈을 자꾸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그걸 공장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독약인 줄 모르고 덤석덤석 받아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동업자에게 원호료에 신발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하여 그 사고로 종업원 세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공장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그 동업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 공장 보일러가 왜 폭발된 줄 아느냐, 사람 세 명만 죽을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당신이 우리 공장을 삼키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공장은 이런 보통 사람의 공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음을 정리하고 동업자라는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오늘부터 당신 혼자 나가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해버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업자가 어떻게 자기가 이 공장을 먹어버리려고 들어온 걸 아는지, 도대체 이 사람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 귀신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공장에서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늘의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항상 이 일곱째 천사하고 대결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이런 저런 사업을 한 끝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게 되자, 남대문 옆 영화빌딩 7층에 약 30평기방 되는 사무실을 차리고 공유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즉 사장으로서 그 회사를 경영하였습니다. 주로 샵드리라든지 라디오가 달린 까만 안경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였습니다.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보고 대량판매 가능성을 예측한 후 그 물건의 샘플을 구입하여 외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건 알미를 보내라고 통지가 옵니다. 일곱째 천사는 그 통지서에 의해서 물건을 사다가 수출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진흥기업 박영준 회장이 일곱째 천사의 국민학교(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 박 회장을 통해서 많은 물건을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을 장려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많은 돈을 지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 청운동에서 엄청난 치유기적과 기사이적을 행하다

한참 무역을 활발하게 이루어져 돈을 잘 버는 일을 하면서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청와대 옆 청운동 임씨네 집에서 교인 삼십여 명을 모아 놓고 예배를 봤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던 일곱째 천사는 선천성 앓은뱅이, 병어리, 소아마비, 장애인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병을 고쳐줄 때에는 “누가 고쳐 주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약속을 받고 고쳐주었던 것으로 소문이 나지 않게 은밀히 숨어서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병이 나왔다고 누구한테 자랑만 하면 그 병이 도져 죽으니까 병이 낫다는 말을 누구한테든지 하지 말라”고 신신부탁을 했기 때문에, 일곱째 천사가 병을 고쳤다는 것이 소문이 안 난 것입니다. 그 당시 일곱째 천사는 어떻게 하면 전도관 진리를 국민 모두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청운동에서 치유기적과 기사이적을 많이 행할 때, 그곳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성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먼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곱째 천사를 은혜자로 알고 찾아와서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기성교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이 눈안찰을 해주고 있다

인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일곱째 천사가 행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체험했다면 그 일곱째 천사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청운동에서 예배를 해주던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임집사라는 청년을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임집사한테 “절대로 음란죄를 짓거나 당신이 여자를 알면 될 것도 되지 않는다.”고 일러줬는데도, 그 사람은 일곱째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대통령의 딸 박근혜 양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결국 미국국을 먹었던 것입니다.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신 후 박근혜 양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청운동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된 박근혜 양의 비서실장이 박근혜 양을 도울 수 있는 스승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전도관 교인을 들여보내려고 알아보다가 덕소 신앙촌의 홍 교장 선생님의 따님이 숙대 교수로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만나 간곡히 부탁하여 보았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무산된 적도 있었 해서 일해 주시고, 또 박양의 아버지인 박 대통령에게 암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 읽지도 고쳐 주겠으니 이 사람에게 박대

통령을 만나게만 해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박대통령의 암을 고쳐주면 전도관 진리가 명실공히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틈튼히 뻗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홍 교수에게 애원해도, 홍 교수는 높은 사람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면서 끝내 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물색해 보았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 그 계획을 그만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일곱째 천사가 드러나서 일을 하면 이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이와 같이 일곱째 천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움직였던 제 사사로움을 따라 움직여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말씀 가운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대로 안 보이는 곳에서 희생과 정열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가 청운동에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한창 할 무렵 지은북 선생한테 전도를 받고 곧장 강원도에 있는 해와 이긴자 집에 찾아가 있었습니다.\*

박헌수



#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33>

## 능정업장분(能淨業障分) 第十六

업장(業障)이란 무엇인가? 업이란 범어로는 카르마[karma]이며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동작과 말과 생각하는 것과 그 세력을 말하는데, 바로 인간들의 유전죄도 여기에 속하므로 통상적으로 나쁜 업(惡業)을 말한다.

### 업장을 능히 깨끗하게 함(1)

復次須菩提 善男子善女人受持讀誦此經 若為人輕毀 是人先世罪業應墮惡道 以今世人輕毀故 先世罪業即為消滅 當得阿耨多羅三三菩提 當得阿耨多羅三三菩提

또 수뇌라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남에게 업신여김(輕毀)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선세(先世=前世:前生과 같음)의 죄업으로 반드시 나쁜 길로 떨어질 것이지만 금생에 사람들이 업신여김 탓으로, 전생의 죄업이 곧 소

멸되고 마땅히 아누라사삼삭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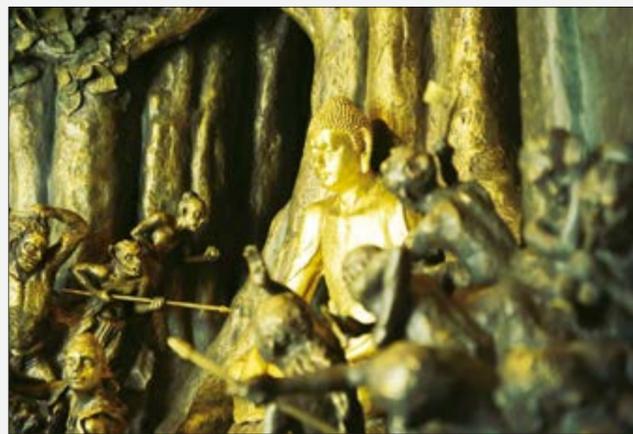
[해석] 이 부분은 금강경의 참뜻과 석존의 참뜻을 알았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참뜻을 알고서 말해 주는 이 사람을 보고는 기존의 금강경 이해와 상식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므로 수많은 사람이 사이비(似而非)이니 이단(異端)이니 하면서 놀리고 천대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오랜 세월에 또한 얼마나 많은 금강경이 여러 사람의 입과 머리로 뜻이 전해졌을까요?

그런데도 이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르게 알아서 그 참뜻을 알려주는 사람을 보고 천대시 하면서 비방(誹謗)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금강경의 참뜻을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석존의 실상과 불교를 알고서는 무척 당황하고 믿지 않는다는 뜻인데 과연 무엇이 이렇게 믿지 못하고 당황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독자들께서 지금까지 여러 경전을 증거로 하여 석존의 진실한 뜻을 알려준 것이 바로 현실이요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석존은 입적하실 때에 제자인 가



일본 법상종 본산, 아쿠사지(藥師寺, 약사사) 서탑(西塔) 내(內)에 석가팔상상(釋迦八相像) 중 네 상(相)이 안치되어 있다. 위의 사진은 동쪽에 조각된 <부처님 성도(成道)> 즉 깨달음을 얻는 모습이다.

섭에게도 이 금강경의 수보리가 석존에게 “이 경의 진실한 뜻을 과연 누가 믿겠나?”고 한 것처럼, 가섭 역시 열반경의 진실한 뜻을 과연 후세의 중생들이 믿겠나고 하는 부분이 나온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석존은 말세의 중생들이 내 말(석존)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이 금강경의 참뜻을 알려주는 사람을 비방하고 질시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선대의 죄가 아무리 크고 업

니다.

성불이 바로 해탈이요 해탈이 열반이며 열반이 생로병사를 벗어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인류가 지금까지 꿈꾸던 이상의 세계 즉 화엄국(妙法蓮華)에 들어가서 큰보좌와 덕을 얻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 ※참조(參照)

흔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좋은 일하면 손해본다”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일하면 손해본다”에서 좋은 일하는 행위는 손해보는 것의 조건이 되며, 따라서 “좋은 일 함”이 원인이 되고 “손해 봄”이 결과가 되는 것이 우리의 분석의 상식적 구조이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역설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윤회연기를 도입하면 이러한 우리의 추론은 단연코 깨어지고 만다. 여기에서의 인과관계의 설정이 너무 협소한 현재적 시점에만 국한되어 그 연기적 실상의 전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행위는 미래 어느 시점에선가 반드시 싹을 틔우며, 현재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결과는 과거의 나의 惡業의 결

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인과관계를 가나니 윤회의 과정속에서 넓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일하면 손해본다”는 우리의 현실적 판단은 옳은 듯하지만,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미신적인 전생이나 후생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이 곧 나의 현재적 행위의 결과라는 생각을 지양하는데 보다 포괄적인 인식의 지평을 제공하는 훌륭한 논리 구조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일해서 손해 보지 때문에 좋은 일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손해보든 말든 반드시 善業을 계속 쌓아가는 행위야말로 나의 삶의 정언명령이라는 것이다.

이 절은 바로 선남자 선여인이 『금강경』의 실천으로 인해 현시적으로 싹을 틔우며, 오히려 그러한 싹으로 인해 나의 전생의 죄업이 다 씻기고 반드시 아누라사삼삭삼보리를 얻으리라고 하는 희망에 찬 찬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 『도를 김용욱의 금강경강해』 pp.298-299 인용 \*

明鍾